

부산콘텐츠마켓 '글로벌파워'

백스코서 개막... 43개국 400여개 업체 참가해 성황 OTT·융복합콘텐츠 거래 활기... 펀딩·컨퍼런스도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시장인 부산콘텐츠마켓(BCM)이 8일 개막했다. 올해는 전체 행사기간(8~24일) 중 8~10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대면 행사로 열린다. 부산시는 8일 '부산콘텐츠마켓(BCM) 202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배우 김현주 씨와 김강우 씨를 행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Your story is our story)'라는 주제로 43개국 400여개 업체 700여명의 바이어 셀러가 참가한다. BCM마켓, BCM펀딩, BCM컨퍼런스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BCM의 새로운 얼굴이 된 김현주 씨는 작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자옥'과 JTBC 드라마 '언더커버' 등에 출연하는 등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배우다.

최근 SBS 방영 예정인 드라마 '트러플'의 출연을 확정하며 또 한 번 변신을 예고한 바 있다. 김강우 씨는 JTBC 드라마 '공작도시', KBS 드라마 '99억의 여자' 등을 통해 다채로운 매력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떠나들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총무로 대표 감독인 광경택 감독의 국내 최초 첩보 스릴러 오디오 무비 '극동' 출연이 확정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국내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 온 두 배우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라며 "'부산콘텐츠마켓 2022'의 성공적인 개최와 글로벌마켓으로의 성장을 위해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유망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협약식이 개막일인 8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협약에는 일산창업투자·유니온투자



부산콘텐츠마켓 포스터. 부산시

트너스·대성창업투자가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일산창업투자 등이 투자할 콘텐츠는 '에스피스의' 드라마 '커넥션', '기스튜디오'의 웹툰 원작 드라마 '타임세어하우스', '케이드래곤'의 영화 '심야카페'이다. '에스피스의'는 최근 카카오투V 오리지널 드라마 '이 구역의 미친X'을 제작해 파격적인 제목과 신선한 콘텐츠로 많은 관심을 받은 제작사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인 '커넥션' 제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스튜디오'의 새로운 콘텐츠 '타임세어하우스'는 2018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누적 부 45만을 기록한 동명의 카카오페이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다. 웹툰 연재 당시 독특한 소재와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는 참신한 이야기 구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 부산 영화·영상 제작사인 '케이드래곤'의 '심야카페'는 2019년 MBC 방영을 시작으로 시즌까지 제작된 드라마 '심야카페'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다. 부산을 배경으로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심야카페에서 벌어지는 유쾌한 힐링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심야카페'는 작년 독일 웹드라마 페스티벌 '디 제리알레(Die Seriale)'에서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개봉을 앞두고 있다. 개막일부터 10일까지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BCM컨퍼런스에도 유명 연사들이 참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목

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에는 글로벌 사업설명회,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콘텐츠 제작' 강연, 한중 수교 30주년 맞이 토론회가 열린다. 이어 9일에는 드라마 '파친코' 제작진과 배우가 참석하는 '파친코, 촬영장 속의 이야기', 대체불가능토큰(NFT) 전문가들의 'NFT의 산업동향 및 발전 방향' 강연, 메타버스 강연 등이 열린다. 이 밖에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로 유명한 달시 파켓 등의 '스트리밍의 다양성, 평등 및 지속 가능성: 한국과 영국의 미디어 번역이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부산콘텐츠마켓에는 작년까지 총 8400여개 업체, 2만8500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총 4억달러가 넘는 콘텐츠 계약이 성사됐다. 박 시장은 "이번 부산콘텐츠마켓은 세계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방송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융복합콘텐츠 마켓으로의 변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부산콘텐츠마켓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ibcm.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충창 기자 jckim@skyedaily.com

'안동시의회 30년사' 발간 지방자치 변천 과정 담아

경상북도 안동시의회가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최근 '안동시의회 30년사'를 발간했다. 1991년 통합 이전 안동 시·군 의회부터 2021년 제8대 의회까지 의정활동 30년의 발자취를 총 830쪽 한 권으로 묶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변천 과정을 비롯해 안동시의회 연도별 주요 의정 활동, 사진 자료, 1~8대 대수별 성과 및 발전상을 담았다. 특히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안동시의회 30년 의정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논문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 인사들의 특별기고 등도 함께 실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시의회 30년사"를 집행부 및 산하기관·경북 도내 시·군 의회·국가기록원·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석 의장은 "지방의회가 걸어 온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록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강진, 특조법 마감 전 신청 당부

전남 강진군이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신청 마감에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 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와 발급 신청서를 균형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접수하면 된다.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단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조법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간에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가각된다. 안광철 기자 gcan@skyedaily.com

경북, 미래차 시대로 '성큼'... 상생 일자리 창출

미래차 부품 벨트 조성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발대식 내연기관 산업 혁신적 전환... 대량 고용위기 선제 대응

경상북도가 8일 오전 '경상북도 미래 차 대전환,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미래 차 대전환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경상북도와 경주·영천·경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상생형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상생협의회 위촉식 등 미래 차 상생형 일자리 발대식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세미나, 전기자동차 해체 쇼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경주·영천·경산에 소재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

차 부품산업 대학신으로 지역 상생의 미래 차 부품 산업벨트를 조성해 노동 전환에 따른 일자리 유지와 인력 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미래 차 시장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환경차·주행차·서비스 산업이 견인할 전망이다. 매년 전기차 시장은 약 20% 이상 성장하는 추세이다. 경북 자동차 부품산업은 1414개로 국내 산업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연기관 중심의 중·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빠른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는 기존 내연기관 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대량 고용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든 부처의 지원정책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 경북이 추구하는 상생형 일자리는 특정 지역과 기업 중심의 완성차 생산 모델이 아닌 지역을 연계한 미래 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 기업·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상생의 산업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업 간 Value-Chain을 연계해 1차, 2·3차 협력사에 대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로 기업 상생을 도모하고, 노사민정 대화를 통해 일자리의 양·질적 제고를 개선해 고용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노사 상생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투자 유치, 인센티브 개발 및 상생 협약사항 도출, 노사민정 협의까지 산업 현장의 고민을 녹여 낸



경상북도는 8일 '경상북도 미래 차 대전환,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었다. 경상북도

북형 일자리 모델을 11월까지 완성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연내 공모 선정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세미나는 한국자동차연구원·현대자동차 관계자가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미래 차 정책 동향과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 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자체 최초로 진행된 전기자동차 해체 쇼는 최근 출시한 아이오닉5를 분

해해 부품별 전시와 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 최신 정보 제공으로 미래 차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미래 차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지역만의 상생형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에서도 상생형 일자리가 반드시 연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체 마그넷' 대상

지역 6개 상징 입체적 기법으로 표현... 수상작 25점 선정

경상북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제25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수상작 25점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해 총 91점의 작품을 출품받았다. 경상북도는 각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원갑 계명문화대 교수)를 통해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장려상 5점 등 총 25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선정 작품들에 대해서는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각 200만원, 동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70만원, 입상 각 3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화리단길 생활문화센터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



제25회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 작품. 경상북도

한 선호도 투표를 심사에 반영했다. 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한 심사를 통해 상품성과 실용성을 더했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경기 고양시 전일섭(수원수디자인)씨의 '입체 마그넷'은 경북을 대표하는 6가지 상징물을 입체적인 기법을 이용해 마그넷으로 표현했다. 안동 월영교, 포항 호미곶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드러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심사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K방산·수소정책 배우러 호주에서 왔습니다

주한 호주대사 등 창원시 방문 선진 방위·수소산업 벤치마킹

캐서린 레이 주한 호주대사와 사이몬 크린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AKBC) 회장, 빌 패터슨 전 주한호주대사를 비롯한 AKBC 대표단은 7일 창원시를 방문해 허성무 창원시장을 예방하고, 한화디펜스 및 현대로템 등 관련기업을 견학하며 창원특례시의 선진 방위산업과 수소산업을 벤치마킹 했다. 이번 방문은 허성무 시장이 4월 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K-방산 홍보간담회를 통해 호주 현지의 방산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창원 방위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홍보한 자리에 참석했던 AKBC 관계자와의 면담 및 창원과의 교류를 제안한 데 따라 이루어졌다. AKBC 대표단은 창원특례시 수소산업 정책의 상징인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방산·수소산업 선도도시 창원시의 방산·수소산업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호주 대표단이 7일 창원시를 찾았다. 창원시

실증단지'를 방문해 창원시가 자체 역량으로 수소 전주기별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다양한 질문으로 창원의 수소산업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한화디펜스를 방문한 대표단은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영향으로 방산 및 안보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방산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한편 4월 착공한

한화디펜스 호주공장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기업체 방문을 마친 AKBC 대표단은 창원시청을 방문,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을 예방하고, 류효중 스마트혁신산업국장으로부터 창원 방위산업 및 수소산업 추진사항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후 오찬을 함께 하면서, 향후 창원시와 호주가 상호 우호적인 파트너로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방안을 협의했다. 김점태 기자 jtkim@skyedaily.com

의성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공모 선정

경북 의성군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공모 선정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건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한다. 또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담팀(코디네이터,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9~59세 의성군 거주자 및 직장인으로 일정 기능 이상의 스마트폰을 소지 및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건강검진은 13일부터 7월 1일 3주간 진행된다. 의성군 보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선착순 35명이며 6개월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병건 기자 gbg@skyedaily.com